

전기차 대체 가속 페달... 정유사 수익은 '빨간불'

전기차 환경이슈에 가파른 성장세
2014년 이후 연 59% 성장률 기록

정유업계, 수급불균형은 더 심화
내연기관 차량 감소에 수익성 ↓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의 중장기적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모아진다.

전기차 시장은 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며 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꼽혔던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할 친환경 자동차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중장기적 수요 하락이 예상되면서 정유사의 주력 제품도 함께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이제는 자동차 시장의 축이 석유가 아닌 '배터리'로 옮겨가는 듯한 모양새다.



여수에 있는 정유·화학 산업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면서 정유업계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자동차 업계 또한 석유가 아닌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전기차 시장으로 흐름세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 전체 석유 제품의 수요에서 운송 부문이 약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내연기관 차량이 감소할수록 정유사가 입을 피해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전기차 시장은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전세계적으로 230만대의 전기차가 팔리

면서 지난 2014년 이후 연평균 59%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2025년 기준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내건 전기차의 판매 목표치를 종합해보면 2200만대 내외가 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전체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전기차의 시장점유율이 2018년 기준 3%에서 15%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석유 제품의 수요 둔화를 걱정하는 이유다.

반면 정제설비의 신증설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유업계의 수급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2015~2017년 평균 40만 배럴(일일기준)에 불과했던 정제설비 신증설의 규모는 2021년 연평균 120만 배럴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내년에는 중국의 저장 페트로케미컬과 사우디아의 아라코,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등 각국에서 총 112만5000

배럴의 신증설을 계획 중이며 2021년에는 중국의 시노펙, 나이지리아의 단고테, 인도네시아의 페르타미나 등에서 234만5000 배럴의 정제설비를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세계 석유 수요의 증가 규모인 100만 배럴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금 당장에 정유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석유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미국, 유럽 등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타격을 입을 만큼 전기차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며 "아직 내연기관 차량이 진출할 수 있는 신흥시장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설비에서 나오는 나프타 등 화학제품은 수요가 늘어 석유 수요가 감소하는 데 따른 만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검색, 로그분석 넘어 보안 사업 진출”

엘라스틱코리아 기자간담회

전 세계 8800개 이상 기업 고객 확보
엘라스틱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공급

엘라스틱코리아가 기존의 검색과 로그분석을 통한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출시한 보안 솔루션 '엘라스틱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솔루션 공급에 집중하며 보안 사업 강화를 꾀한다.

엘라스틱 코리아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전략을 발표했다. 엘라스틱코리아 김재성 지사장은 "엘라스틱은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실시간 검색 및 로그분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전 세계 90개국에서 8800개 이상의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장은 지난 6월 엘라스틱의 한국 지사장으로 임명돼 한국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김 지사장은 25년간 IT업계에 종사한 전문가로, 엘라스틱 한국 지사장에 임명되기 전에는 SAP의 자회사인 컨커의 한국영업 총괄을 역임한



엘라스틱 코리아 김재성 지사장이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엘라스틱 코리아

바 있다.

김 지사장은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 현대차그룹, 포스코, SK텔레콤, LG, KB국민카드, 11번가, 이베이, 네이버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선두업체들이 엘라스틱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리셀러와 전략적 파트너 등 다양한 형태의 13개 협력사가 제품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장은 업종별 시장공략 강화를 위해 자사의 다양한 솔루션을 분야별로 구축할 수 있는 협력사들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엘라스틱 커뮤니티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코스포·기재부, 유니콘 기업 육성 나서

2019 디지털이코노미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기획재정부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디지털경제 시대의 유니콘 스타트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2019 디지털이코노미포럼(D EF2019)'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포럼은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관하며, 네이버·스타트업얼라이언스·한화드림플러스·우리은행·페이스북코리아·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은라인광고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계

임산업협회 등이 후원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경제를 기반으로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유니콘 기업에 주목해, 유니콘 기업의 성장전략과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한다. 글로벌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겠다는 취지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수험생 잡아라” 전자·통신업계, ‘혜택’ 전쟁

삼성전자

갤럭시 핏 증정 이벤트 진행

LG전자

액세서리·게임아이템 제공

전자랜드

통신사 별로 다른 사은품 준비

전자 업계가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두고 치열한 마케팅 경쟁에 돌입했다. 스마트폰으로 시작해 노트북 등 대학 진학 준비물로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11일부터 이달까지 5G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험생에 카카오프렌즈 액세서리 패키지'와 '넷마블 인기 3종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역시 14일부터 12월말까지 '갤럭시 아카데미 시즌1'을 통해 수험생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갤럭시 노트 10과 S10, A90을 구매하는 1999년~2002년 2월 28일 출생 수험생에 갤럭시 핏을 증정하는 '갓스물의 스.학.행'이다.

가전 유통사 전자랜드도 나섰다. 1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모바일을 구매하는 수험생에 스키장 1인 리프트 이용권과 장비 렌탈 50% 할인권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통신사별로 다른 사은품을 준비했으며, 갤럭시 위치를 구매



전자랜드는 수험생 스마트폰 구매자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자랜드

하는 고객에는 전자랜드 포인트 5만점도 얹어준다.

통신사까지 동참했다. SK텔레콤은 수험생에 콘서트 초대와 제휴할인 등을 제공하는 '2019 수고0페'와 함께, 5GX 요금제에 가입한 수험생 중 추첨을 통해 항공권 등 선물도 준비했다. 극장과 사진관 등 할인 혜택과 T데이 가격 할인도 예고했다.

KT는 삼성전자와 함께 '갓 스물 페스티벌'을 열고 동시에 '일상이상 갤러리' 오픈 기념 콘서트에 14~30일 스마트폰을 개통한 수험생을 초대한다. '수험생 꿀혜택' 이벤트로 수험생 멤버십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LG유플러스는 전자랜드 프라이스킹 'U+ 특가몰'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종전에 제공하

던 통신요금 포인트를 2배로 선물한다. 2000~2002년생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프로모션이 이어지는 이유는 수능 직후 수험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프로모션을 통해 40% 가까운 판매 성장을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플래그십 등 고급 기종 인기가 높다는 후문이다.

대학입학 결과가 발표되는 12월 이후에는 노트북 등 IT 기기 인기가 치솟아 오르는 만큼, 스마트폰이 아닌 분야에서 새로 프로모션을 시작하는 분위기다.

가전 업체와 유통사들도 12월경부터 노트북을 중심으로 한 예비대학생 프로모션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김재우 기자 juk@

두번째 자율주행... 엠디이, 셔틀버스 실증

시속 20~50km로 왕복 7.7km 운행

엠디이(MDE)는 지난 12일 세종시 BRT(Bus Rapid Transit) 도로에서 자사의 자율주행 셔틀버스로 자율주행 실증 두번째 시승을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벤처부 국제자유특구기획단이 주최한 '세종특구 자율주행차 시승행사'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엠디이 자율주행 셔틀버스에 탑승했다.

엠디이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센터부터 합강교차로

를 지나 다시 산학연클러스터센터로 돌아오는 왕복 7.7km 구간을 운행했다. BRT 구간에서 운행된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별다른 이상이나 사고 없이 시속 20~50km의 속도로 주행을 마쳤다. 엠디이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아직 GPS가 잡히지 않는 터널에서의 운행은 다소 불안했으나 나머지 구간에서는 안전하게 운행했다는 평을 받았다.

/배한님 기자